

## 생명을 주는 영

### 롬 8:9~11

#### 두 가지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간에게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해결책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답은 8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듯이,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생명과 영생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느냐, 영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성령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 영이 나를 지배하여 영의 사람이 되고 생명과 영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법 중에서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법아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 즉 생명의 법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무력해서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죄의 법이, 율법이, 세상 법이,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무력해 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나를 지배했고 사로잡아 왔는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 육신의 법이 무력해 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생명의 법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내 안에서 이 법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힘

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을에 메마른 땅이 단비를 맞듯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찬송가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교회를 자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공부에 재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의지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모든 병이 사라지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지고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된지라”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재료를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흙입니다. 이것은 물질입니다. 자연에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흙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그 흙에다가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흙이 합해져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람이 생령(生靈)이 된지라”라고 표현합니다. 생령은 Living Soul, 즉 살아있는 혼, 정신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물질로만 되어 있지도 않고 동시에 영으로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물질과 영이 절묘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 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다시 얻는 생명**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 받은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사탄이 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 되었고 죄의 존재가 되었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체와 정신만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다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 두 가지 사실

우리는 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하늘과 땅을 품고 있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빛과 모든 창조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이 성령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로 들어가서 임신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임할 때부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앓은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삼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생전에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바로 성령님 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2천 년 전 팔레스틴 땅으로 가서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볼 수는 있었습시다.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

이 몇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육체가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2천년의 간격을 아무 갈등 없이 통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구원을 내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여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천 년 전에 계신 예수님은 영으로 똑같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 **성령을 받으라**

누구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영접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긴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듣는 귀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초대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초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더러운 것들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이 당장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치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치워지면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죄악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영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영을 받기는 합니다. 예언도 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영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오는 것은 다 잘못된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 역사하시는 성령

10절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2천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부터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었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을 할 때 앓은병이가 일어나고 3천명이 회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들, 육신의 것들을 좋아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전처럼 그런 것들이 재미있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법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데 서툰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죄를 지으려면 한참 맘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각 없이 죄를 지었지만 거짓말을 하면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육의 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옛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투투투 대지만 교회에 오는 것이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육의 본능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청소되기 시작합니다. 죄가 보혈로 씻어져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맥을 못 추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마치 쥐처럼 구멍을 통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것은 독안에 든 쥐처럼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긍정적이 됩니다. 비판이 변하여 남을 격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영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날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 들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집을 짓고 사시면서 여러분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시고, 병들었을 때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몸도 다시 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모든 육의 본능과

죄악과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